

명징성 明澄性

| 네이튼 질 | 유래현 옮김 |

그 어떤 황홀한 경험도, 깨달음의 경험도 지금 이 순간의 명징한 의식 자체를 건드릴 수 없으며, 모든 '경험'은 그저 왔다가는 일시적 현상임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소위 깨달음의 경험이라 할지라도(편집자 주).



만약 있는 것이 모두 의식이라면, 오로지 의식만 있다면, 당신은 왜, 그리고 무엇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까? 만약 의식만 있다면 지금 바로 당신이 의식입니다. 알아차림으로서, 알아차림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밖의 모든 것도 의식일 겁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분리된 자아감이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지요. 나라든지, '행하는 자' 또는 자아 같은 어떤 개인적 자각 이든간에 그것은 의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일 수 있습니까? 나, 자아, 시간, 생각, 분리 등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의식이 아닐까요? 소소하고 일상적인 현상이 무조건적인 사랑, 전체성, 은총, 고요함, 침묵, 또 그 밖의 현상에 비해 의식에 덜 가깝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초월되거나 발견되거나 놓아버려야 할 어떤 것이 있거나 한 걸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깨달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이러한 이해 속에서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명징성(明證性)

25살 정도 되기 전까지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학교 종교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였다.

1985년쯤 나는 형제애적 종단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한 달마다 신비주의와 '우주 보편 법칙'에 대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몇 년 후 나는 그 종단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옛 인도 스승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다른 수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 그가 이미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영적인 테크닉을 배운 후 서양 구루의 책을 만나게 되었다. 그 책에 의하면, 나는 이미 깨어났고 해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

만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몇 권의 책을 떼고 나자 그는 자신이 세계의 교사라고 하면서 관심이 있다면 구루-제자 관계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후 5년 동안 나는 그의 책 몇 권과, 수중에 들어오는 영성 도서 몇 권을 읽었을 뿐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이 서양 구루의 책만 한 것이 없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미 깨어있고 자유롭다는 그것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쨌든 나는 이 사람과 다른 모든 것들에 질려 있었고 아드바이타 철학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라마나 마하리쉬, 진 클라인, 그리고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와 라메쉬 발세커가 직접 쓴 책들과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읽었다.

이전에 가졌던 많은 혼돈들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나는 왜 여전히 분리감을 느꼈을까? 잃어버린 연결 고리가 뭘까? 내가 이미 깨어났고 자유롭다면 왜 내 인생은 싸놓은 똥처럼 느껴졌을까?

1997년에 나는 토니 파슨이 첫 번째로 쓴 책인 『열려있는 비밀』을 읽게 되었다. 나는 그와 접촉했고 런던에 있는 그의 집에서 열리기로 한 대화시간에 초대받았다.

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방 안에 앉아 있자니 내가 ‘깨달음’이라는 드라마에 얼마나 신비주의를 덧칠해왔는지 알게 됐다.

토니는 평범해 보였다. 그는 유머와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사람들의 질문에 그가 답하는 것을 들었고 그 대답들의 단순함과 명료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나는 그 다음 해에도 여러 번의 대화시간에 참석했고 토니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다.

나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그는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직 의식 밖에 없으며 내가 이미 의식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점은 전부터 이해했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정말 분명해지고 있었다. 토니는 나의 본성이 의식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찌 됐든 1998년 9월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었고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미세한 ‘나’라는 의식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따라 한 바퀴 돌았고 마치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참여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비록 토니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본성이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나는 분명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건 혹은 경험이라는 것이 깨어나도 된다는 ‘허가’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종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토니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에게 어떤 깨어남의 ‘인가’가 주어졌는지를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구도 과정에서 얻은 명징한 이해로부터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더 이상 구도자의 입장에서 토니를 대하지 않았고 토니도 내가 ‘의식’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제 나는 이 깨어난 경험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여전히 같은 상태였을까? 그렇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나는 경험의 강도가 조금 약해진 것을 알았지만, 다시 며칠 뒤에 그것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후 몇 주 동안 경험이 왔다 가고,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다. 토니의 대화시간에 참석하면 경험이 재충전된 듯 느껴졌지만 며칠 지나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토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후 모임에 한동안 가지 않았다. 나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다가 수잔 시걸Susan Segal이 쓴 『무한과의 충돌Collision with the Infinite』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녀는 다년간 꾸준히 지속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몇 년 후 어떤 ‘스승들’에 의해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인가받았다. 그 후 그녀는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녀의 친구인 치료사가 쓴 책의 후기를 읽어보면 그녀는 말년에 그 경험이 사라져버리자 혼란과 좌절 속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바로 그거였다! 갑자기 내가 초월적인 사건이나 경험이라고 불렀던 이 경험들이 사실 명징함과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초월 경험은 몇 초 또는 십수 년, 심지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의 경험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이 사라지면 그것을 더 갈구하게 된다. 그들은 ‘깨달음’의 맛을 봤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들이 초월 경험을 했다는 것뿐이다. 이를 테면 길을 걷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지만 일상적인 일이어서 우리가 더 갈구하지 않을 뿐, 초월경험도 다를 바 없다.

혼돈은 사라졌다.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언제나 그것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초월 경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내 ‘영적’ 구도의 모든 것이 내가 이미 그것으로 있는 상태에 더해졌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는지, 왜 그들이 ‘영성’을 명징함과 혼동하는지 알았다. 진정한 본성에 대한 나의 인식은 초월적 사건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었다. 자신의 본질이 의식임

을 명징하게 인지하기 전에 초월경험을 한다면 혼동하기 쉽다.

경험했던 초월적 사건이 명징한 앎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그 사건이 발생해서 머리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내가 이미 있는 그것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건을 내심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명징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초월적인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알아차림

당신은 의식이다. 모든 것들이 의식으로서 있는 당신 안에서 나타난다. 세계, 몸, 생각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나타난다. 다른 것들과 분리된 당신이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자 현상이다. 어디에 가거나 무언가를 해야 이것이 명료하게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더없이 자명한 것이다. 당연히 하다 보니 늘 간과하고 있었을 뿐.

모든 것이 알아차림 속에서 나타난다. 이제는 일상이 된 알아차림. 그것은 이 현존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밑바탕이다. 단순히 알아차린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공통된 요소다. 당신이 그냥 현재에 있다는 것을 보라. 그밖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지금의 알아차림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사람들이 스쳐가고 구름이 흘러간다. 대화가 이어지고 생각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지금의 알아차림 안에서 펼쳐진다.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모든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 생각들, 세계들, 우주들, 삶, 죽음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난

다.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동일시가 당신 안에 자리잡는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자 나타남이다.

모든 경험들이 당신 안에 나타난다. 의식 안에서, 의식으로써 모든 것의 현존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깨달음'의 경험이라도 단순히 그 앞 속에서의 경험의 또 다른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 자아 또는 어떤 것의 초월이나 사라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 일상의 알아차림 속에 나타난다. 이 경험은 이제, 일상적이건 비범한 것이건, 그 알아차림의 '내용'이다. 어떤 것이 되었던 바뀌어야 하거나, 얻어져야 하거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없다. 당신은 의식이다.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으로써 나타난다.

지금 알아차림이 여기 있다. 내용은 관계없다. 알아차림과 내용. 바다와 파도. 삶의 조류와 흐름이다. 지금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그것이다.

받아들이기

지금 이 순간순간에 알아차려지는 내용에서 벗어나 생각 속에서 전개되는 개념적인 스토리에 흥미를 잃게 되면, 그 개념적인 삶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더 이상 주의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

개념적인 나(또는 에고)와의 동일시는 단순한 알아차림만큼이나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은 몸이라는 존재로서 '나'라는 단순한 감각에 쓸데없이 텅씩워진 것이다.

생각이나 자아를 없애려고 애쓰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추구에서 자연스레 벗어나게 해준다. 자아를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은 자아와 동일시하는

감각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깨달음이 마술처럼 반짝 나타나 일상적인 육체적 삶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은 아니다. 생각은 계속되고 삶은 이어져 나간다. 다만 전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게 된다. 삶은 전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현으로 보이게 된다.

당신은 의식이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자아Ego를 제거하려고 어떠한 식으로든 노력하는 중이다. 개념적 동일시는 알아차림의 연극 속에 더해져 나타난 것일 뿐, 알아차림은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아는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삶이라는 연극

명징하게 보게 되면 삶은 늘 거대한 연극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연극 속의 모든 역할들을 연기하며, 원인 없이 자생적으로 나타난 거대한 쇼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의식이다.

당신(의식)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역할들을 연기하는 것도 연극의 일부이지만 때론 그 쇼의 일부로써,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알려줄 때가 있다.

당신(의식)이 당신의 본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의 연극 속 인물로써 참여할 때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이며 그래서 삶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당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역할을 연기할 때는 연극이 연극으로만 보인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아는 극중 인물은 섬광이나 폭

발과 함께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물론 연극엔 규칙이란 것이 없으므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황토색 옷을 입고 제자들을 거느리거나, 영적인 진실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비록 극중 인물의 역할 패턴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물은 그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물은 연극 속 일상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인물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도 그다지 필요치 않다.

이렇듯 명징하게 본다는 것에는 특별히 논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은 연극의 한 부분이고 그것과 연관된 뭔가 대단한 점도 없다. 만약 명징해지기 전에 그 인물이 고통을 받고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여전히 인물의 역할의 일부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지복감이나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연기되는 역할이 그렇게 느낄 때만 가능하다. 규칙이나 조건은 일절 없다. 연극 전체에는 아무런 목적이나 핵심이 없으며, 연극 전체가 그저 당신 자신을 기리고 축하하는 당신이라는 의식이다. 당신이 바로 연극이다. 당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는 없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은 명징함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영적인 삶은 삶이라는 연극의 일부 현상이지만 명징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곧잘 혼동되곤 한다. 왜냐하면 명징함이 더욱 고차적이거나 더욱 정묘한 삶의 단계로 점차 진화해 나갈 때 연극 속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사에 사로잡힌 보통 인물은 종교나 자기계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영적’ 삶을 지향한다거나 아드바이타 철학의 비이원론에 관심을

알아차림은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아는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은 명징성이 나타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극중 언제나, 어떤 인물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삶이라는 연극 속의 다양한 부분들이나 나타나는 단계들의 어떤 요소들도 명징성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명징함은 자생적으로 일어난다. 삶이라는 연극으로서 그리고 그 연극 안에서 의식이 의식 자신을 알게 된다. 아드바이타의 지식이라고 해서 삶의 다른 요소들에 비해 명징성을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힘이 더 있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개인을 의식의 본질에서 분리된 상태로 보며, 의식과의 재합일을 목표로 한다.

이 재합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국적인 테크닉과 방법들이 개인을 '정화'하고 자아를 소멸시키고, 마음과 감정을 고요히 하기 위해 형식화되어 왔다.

근본적인 부분이지만 모든 개인적인 구도의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은, 그 개인(당신에 의해 연기되고 있는 의식)이 이미 그가 찾고 있었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미 자신이 그것이라면 더 이상 그들은 구도자가 될 필요가 없다.

구도 방식과 활용된 모든 방법들, 테크닉들은 연극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선택될 뿐이다. 그것들은 연극의 한 부분으로서 저절로 나타난다.

명징함은 영적인 '자격' 없어도 누구에게나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

연꽃 자세로 앉아서 자주색 광선이 생식기에 비치고 있다고 상상하며, 우주를 들이마셔 태양 신경총으로 보내고, ‘옴’ 만트라를 외며 척추를 따라 올라가 천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에 도달한다고 해서 계토 안에 있는 약물 중독자보다 재합일 경험의 기회를 더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은 이미 완전히 바로 여기에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재합일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영적인 삶은 ‘정화되지 않고’ ‘분리된’ 개인들에게 많은 요구사항을 강제한다. 특별한 명상법, 적절한 행동, 의식, 식단, 성생활 제한, 자아 소멸, 생각 멈추기, 고요함 추구, 영적 구루에게 복종하기 등등.

의식은,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든 이미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채식이나 독신, 탄트라적 성생활, 명상, 구루가 전혀 필요 없다. 의식은 이미 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노래나 명상, 채식, 탄트라적 성행위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괜찮다. 다만 그것들이 당신이 이미 그것으로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주의를 색다른 영역으로 향할 수 있다. 원자 차원에서 우주의 끝없는 창조와 붕괴를 본다든지, 시바와 샷티의 영원한 우주적 합일을 경험한다든지. 하지만 돌아오면, 월요일에 일하러 가고 전기 요금 지불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의식)은 연극 속에서 스승이나 마스터, 구루의 역할을 맡은 개개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한 개인은 초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현재 초월 상태 중일 수도 있다. 본인은 그 경험이 이른바 ‘깨달음’이라고 믿는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구루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초월경험(이른바 ‘깨달음’)을 가능케 해준다는 방법이나 신념들이 그 사람의 추종자들에게 다시 ‘진리’로 전수될 것이다.

이 몇몇 ‘스승들’은 에너지 전달로 제자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이끌

어 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유혹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연극을 완벽하게 만든다. 계속 하라. 즐기라. 하지만 그런 것들로 명징함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다 하지만... 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의 삶을 치유해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깨어있고, 여기에 있어야 하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고, 지구를 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증인이 되고, 은총이 넘치며, 구루를 하나 찾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생각을 가라앉히고, 좋은 일을 하고, 자아를 소멸시키고, 남자다워지고/여자다워지고, 좀더 실제적이 되고, 깨달음을 얻고, 소울메이트를 찾고, 의식을 치루고, 입문을 하고, 내 감정을 항상 잘 챙기고...

당신은 이럴 것이다. 누가 말리겠는가? 당신이 그것들을 하느라 바쁜 동안 나는 가서 차 한 잔을 들면서 신문을 읽겠다.

이미 있는 것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모든 순간마다 알아차림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알아차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과거에서 온 것도,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에 있는 의식이다.

당신이 강한 자아존재감과,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하나의 분리

된 사람인 것 같다면 그것은 당신(의식)이 그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개인은 자기 개발, 영적인 삶, 또는 각자 나름대로 그 삶 내내 어떤 것에 매달릴 수도 있지만, 당신 본연의 상태인 명징함만이, 그 깨어나려 한다든지 이미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추구를 끝내버릴 수 있다.

분명함

당신(의식)은 지금 당신의 연극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극은 따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없으며, 당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연극으로서 나타난다. 완전히 깨어있으며, 절대적으로 이미 활짝 깨어있다. 따라서 깨어날 수가 없다.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에 대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결코 숨을 수 없다.

연극 속에서 당신에 의해 연기되는 인물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인다. 당신의 극중 인물들이 바로 당신이다. 삶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 침잠해서 당신 자신을 기리고 축하하며, 자아 찾기 놀이를 하고 때론 연극에 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보기도 한다.

이 명징성과 관련된 담화는 연극의 다른 어떤 부분들과도 특별히 관련성을 지니거나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요점도 없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찾는 목적도 없다.

명징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자명한 상태로 여기(무대)에 등장한다. 무수한 형태로 화하는 연극을 명징하게 꿰뚫어 보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음을 아는 상태로.

바로 지금, 당신이 의식이다. 극중 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관두시라. 당신은 이미 그것이다.

사랑을 가득 담아,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네이튼 질
2000년 2월

나는 내가 일상의 지루함, 시련,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일상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이제는 그것이 매순간의 알아차림 '속에서', 알아차림 '으로서' 보여집니다. '영적' 추구는 끝났습니다.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끝) 

- 이 글은 『Clarity』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네이튼 질** Nathan Gill | 1960년 출생. 잉글랜드 시골에서 정원사로 일하면서 살고 있으며, 현재 런던에서 명징성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G.O.B. 15 Court Broomes, East Sutton Maidstone Kent ME17 3DH England로 편지를 보내거나 www.nathangill.com을 참고.



역자 | **유래현** | 〈지금여기〉 번역위원. 서울대학교 작곡가 졸업 후 현재는 프랑스에 머물며 파리고등사범음악원(ENMP)에서 영화음악, 오케스트레이션, 작곡을 공부하고 있다.